

특집 코로나-19의 사회-공간 읽기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발생의 지역상권 영향 분석

수원시를 사례로*

Analysis of the Impact of COVID-19 on Local Market Areas
Using Credit Card Big Data:
A Case of Suwon

이성호** · 최석환***

본 연구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월별 매출액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역경제 및 상권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 3월까지의 코로나19 확산기에 수원시 전체 신용카드 매출은 이전 시기에 비해 약 18% 정도가 감소하였다. 대면접촉업종과 비필수 업종, 교통중심지 상권일수록 더 큰 매출감소를 경험한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가정 내 활동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근린상권, 생활 관련 업종 등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거나 일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4월 이후에는 수원시 전체의 전반적인 소비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기에 매출감소가 컸던 부문의 회복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역 상권과 같이 기존에 외부 유동인구의 비중이 높고 20대 이하 소비자 및 주말 매출이 많았던 상권일수록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코로나19, 지역상권, 재난기본소득, 빅데이터, 수원

* 이 논문은 수원시정연구원 SRI정책리포트 20-21호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수원시 지역상권 영향 분석」(수원시정연구원, 2020년 7월)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연구에 사용된 기초자료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2020년 데이터타워치 지원사업 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부문>의 지원을 받았음.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교신저자, 2sungho3@gmail.com)

***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csh@suwon.re.kr)

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대유행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기존의 일상생활 방식과 경제활동의 양상이 전면적인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팬데믹(pandemic)’, ‘언택트(untact)’ 등 새롭게 등장한 용어들이 어느덧 부연설명 없이도 모두가 받아들이는 뉴노멀(new normal)의 사회양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일상생활의 차원을 넘어 국가 간 이동이 사실상 제한되면서 항공·여행 등 특정업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연시되던 글로벌 분업과 공급망 체계 역시 위기에 직면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산업과 고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세계 여러 곳의 민낯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동안 선진국으로 불리던 미국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방역실패와 보건·의료체계의 붕괴라는 공공부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재기와 방역수칙 미준수 등 사회의식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최병대, 2020). 또한 코로나19의 영향은 취약계층에게 보다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국적 봉쇄를 실시한 이탈리아에서는 봉쇄의 영향이 결국 소득불평등이 심한 가난한 지역의 최빈계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혔으며, 미국에서도 흑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이 백인 거주자가 다수인 지역에 비해 감염률은 3배, 사망률은 거의 6배가 높게 나타났다.¹⁾ 이것은 보건·의료의 격차뿐만 아니라 소득과 사회보장의 격차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코로나19라는 예외적 상황에서 그동안 축적되어 온 사회격차가 그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Bonaccorsi et al., 2020; Dorn et al., 2020).

1)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경우 주민 중 흑인 비율이 26%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흑인 비율은 73%에 달한다(Reis Thebault, Andrew Ba Tran and Vanessa Williams, “The coronavirus is infecting and killing black Americans at an alarmingly high rate” *Washington Post*, April 7, 2020).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국내에서도 전 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2월 이후 초·중·고 및 대학의 온라인 개학,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통해 비대면 방식이 일반화되면서 점차 확대되고 있던 기존 오프라인 활동의 온라인 전환양상에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에 따라 외부활동과 비필수적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를 대체하는 온라인 소비가 증가하면서 국내 소비심리의 위축에 더해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한 지역상권이 이중고를 겪게 되면서 지역경제의 침체 우려 역시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히 발전해 온 IT 기술과 당일배송, 새벽배송 등 물류혁신이 결합되면서 전통적인 오프라인 소비영역이던 신선식품마저도 코로나19하에서 급격하게 온라인 소비로 전환되고 있어,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역상권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이 우려된다(신기동, 2020).

전 세계적으로 시시각각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례 없는 팬데믹 상황에서 그 영향은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구체적인 양상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새로운 사회·경제적 양상에 더해 재난기본소득²⁾ 지급이라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수반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이에 따른 영향과 효과 역시도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2차 추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수원시라는 공간적 범위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내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지역상권이 받은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새롭게 직면한 사회적 재난 국면과 그 영향에 대한 논의의 토대가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 단위의 영향 양상을 신속하고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가짐을 우선 밝혀두

2)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으로 명명하였고 중앙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유사 정책에 대해 상이한 명칭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관련 정책들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통칭하였다. 여기에는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이동돌봄쿠폰 등 여러 부처의 관련 사업까지 모두 포함한다.

고자 한다.

2) 연구자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수원시로 설정하였다. 수원시는 2020년 7월 기준 인구 123만 명의 국내 최대의 기초지자체로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와 경제규모를 가지면서도, 농촌 지역까지를 포함한 광역 단위에 비해 도시화 지역으로만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도시 지역의 소비활동 양상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또한 수원 화성 주변의 원도심 지역과 전통시장, 그리고 영통, 광교 등 대규모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도시 내부에서의 상권 특성에 따른 양상의 차이를 살펴보기에도 유리하다.

분석자료로는 수원시 소재 BC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승인 월별 집계자료를 활용하였다.³⁾ 2020년 5월 기준으로 거래실적이 있는 수원시 관내의 가맹점은 총 3만 5,556개이며, 월간 총 승인건수는 약 672만 건, 거래액은 약 1,400억 원 정도이다. 원자료에 포함된 정보는 승인건수, 승인액, 가맹점 위치, 가맹점 업종구분, 가맹점 연간 매출액 규모, 사용시간대, 사용자 연령, 사용자 거주지역 등이다. 분석자료의 공간적 단위는 행정동 및 집계구⁴⁾ 단위의 두 가지 집계자료를 모두 활용하였는데, 다만 개별 가맹점의 정보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집계구 단위에서는 대분류 기준 업종분류까지만 포함하고 있다.⁵⁾ 2019년 기준으로 수원시의 행정동은 4개구의 44

3) 신용카드 거래승인 데이터는 가맹점의 오프라인 소재지를 기준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가맹점 소재지가 타 지역인 온라인 거래 및 수원시민의 타 지역 사용내역은 제외되며, 타 지역 주민의 수원 내 사용내역은 포함된다.

4) 집계구는 통계청에서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한 최소 통계구역 단위로 약 300세대 내외의 비교적 균질한 물리적 환경을 가진 등질지역으로 구성된다.

5) 카드사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KSIC)가 아닌 카드사별 자체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어 업체별로 차이가 있다. BC카드의 경우 대분류 8개 업종, 중분류 36개 업종, 소분류 236개 업종으로 분류하며, 대분류 8개 업종은 T&E(Travel and Entertainment)(업종코드

〈표 1〉 월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추이(단위: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총 확진자	전국	11	2,920	6,956	887	729	1,348
	수도권	—*	156	886	364	532	949
	수원시	0	3	39	8	10	40
일평균 확진자	전국	0,4	100,7	224,4	29,6	23,5	44,9
	수도권	—	5,4	28,6	12,1	17,2	31,6
	수원시	0	0,1	1,3	0,3	0,3	1,3

* 지역별 확진자 수는 2월 중순 이후부터 공식발표.

출처: 질병관리본부 및 수원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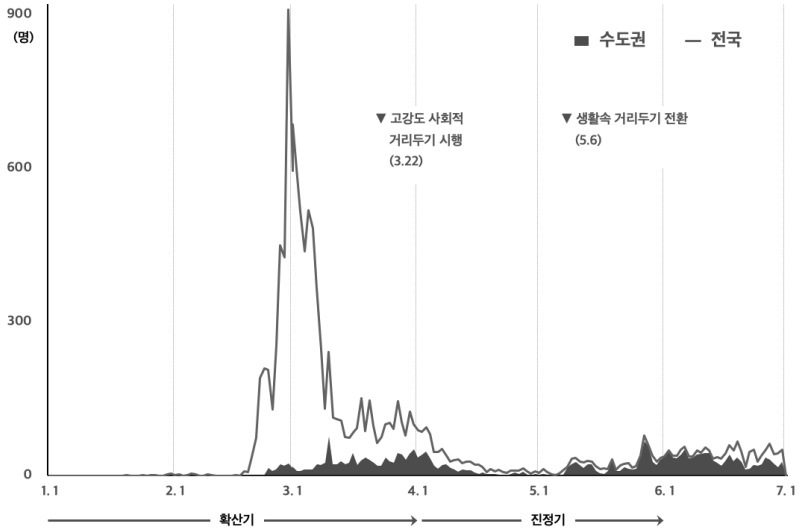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집계구 수는 총 2,403개로 행정동별로 평균 55개 정도의 집계구로 구성된다.

분석의 대상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8개월로, 이 기간은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이 가능하다. 즉, 2019년 10~12월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이며, 2020년 1~3월은 코로나19 확산 시기로 특히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져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정점에 달한 시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2020년 4~5월은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시기로, 성공적인 방역성과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바탕으로 사회·경제 활동이 점차 재개되는 시기이다.⁶⁾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을 기준으로 코로나19가 수원시 지역상권에 미친 영향의 구체적인 양상을 기술하였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의 정점에 해당하는 2020년 3월과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영향

10), 문화(20), 생활(30), 쇼핑(40), 내구재(50), 음식(80), 유흥(85), 기타(99)이다. 수원시 관내에는 2020년 5월 시점에서 중분류 기준으로 자판기(98) 업종을 제외한 35개 업종과 소분류 기준 189개 업종에 해당하는 가맹점이 분포하고 있다.

- 6) 시기의 구분은 기본적으로 국내 확진자 수 추이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연구 대상 지역인 수원시의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설정이나 학교의 개학 연기 등 여러 방역대책이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른 수원시나 경기도 차원의 조치라기보다는 전국 단위의 추이에 기반한 중앙정부의 조치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였다.

〈그림 1〉 국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와 시기 구분



출처: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정리.

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20년 5월을 중점적으로 비교하였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의 정도는 월 전체 거래액을 해당 월의 날짜수로 나눈 월별 일일평균거래액을 활용하였으며, 2019년 10월과 11월의 일일 평균거래액을 코로나19 이전의 일반적인 매출액 규모에 해당하는 기준값(=100)으로 설정하고 이후 기간의 월별 일일평균매출지수를 산출하여 변화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비교를 수행하였다.⁷⁾ BC카드의 업계 점유율은 매출액

7) 이 방식에서는 계절에 따른 소비활동의 주기적 변화 영향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년도 동일 월의 데이터와 비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이민주·김규환(2017)은 서울시의 추정매출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권 매출액이 12월에 가장 높고 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독가능한 데이터가 1년 기간의 자료였기 때문에 다른 비교방식을 고려할 수 없었다는 점은 한계로 남아 있다. 다만 본 연구결과에서 밝힌 변화의 정도가 계절별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유의미한

기준 24%(BC카드 내부자료 기준) 정도로, 카드사별 거래유형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전제 하에 BC카드의 거래승인 자료가 수원시 전체 경향을 일정수준 이상 반영한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보정은 수행하지 않았다.

2. 코로나19, 재난과 사회변화

1) 코로나19 발병추이와 주요 대응

2019년 11월 중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12월 31일 그동안 부인으로 일관해 오던 중국 정부가 신종 전염병 발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서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전염병 감염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중국 정부의 인정 이후 불과 20여 일 만에 인접 국가를 넘어 미국, 유럽 등지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추후 코로나19로 정식 명칭이 부여된 이 바이러스는 더 이상 중국 일부 지방의 ‘괴질’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되었다. 국제보건기구(WHO)는 1월 15일 사람 간 전염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였으며 불과 보름 후에는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바로 ‘코로나19’에 따른 대혼란과 변화의 시작이다.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며칠 앞선 1월 20일 우한시에서 일본으로 가기 위해 입국한 중국인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1월 말부터 우한시 방문자를 중심으로 소수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였지만 국내 확산 우려는 그리 높지 않았다. 즉, 초기에는 전세계 투입 여부, 입국교민의 단체격리시설 지정 등 중국 일부 지역에서의 특이상황 발생과 그에 따른 교

수준이라는 점과 전년도 동일월과의 비교방식의 경우에도 연도별 매출규모의 증가, 특히 개별 상권단위에서 상권 확대에 따른 매출증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민 등 일부와 관련된 위험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하지만 2월 18일 국내 31번 환자인 대구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의 발생 이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대규모 확산이 현실화 되면서 상황은 급변하였고 국가 차원의 비상대응 조치가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각 급 학교의 개학 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공적마스크 제도 도입 등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고강도 조치들이 연속적으로 도입·시행되면서 기존 일상생활의 방식을 영위하는 데 있어 전방위적인 제약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초기 확산기에 이탈리아, 터키 등과 함께 코로나19의 위험 국가로 인식되어 여러 국가들에서 한국인 입국금지 등의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국제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에 따라 오프라인 기반의 경제·사회 활동이 대부분 멈춰지면서 전 사회적 영향에 직면하게 되었고 항공업, 관광업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업종들을 시작으로 다중이용시설과 학원 등의 시설과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자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점차 지역사회로까지 깊숙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국민들의 소득감소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적 하에 재난기본소득 등 일련의 정책 도입 역시 본격화되었다. 3월 24일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 지급 결정을 계기로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해, 2020년 5월 11일 중앙정부 역시 최종적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⁸⁾

8) 수원시민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과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 87만 1천원(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을 수령하였다. 즉 4인가구의 경우 가구 전체가 수령한 재난기본소득은 167만 1천 원이며, 이 중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 포함되는 신용카드 방식 지급액은 최대 127만 1천 원이다. 수원시민 전체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총 지급액은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1,190억 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193억 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2,835억 원(예산 편성액 기준) 등 5,218억 원이며 경기도·수원시 재난기본소득의 신청비율은 97%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의 시민이 지원금을 수령하였다(수원시 내부자료 기준). 지급방식

〈표 2〉 코로나19 관련 주요 일지

일시	세계	국내
2019년	11.17: SCMP 우한폐렴 의심 환자 발생 주장, 중국정부 부인 12.31: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환자 집단발생 공식 시인	—
2020년 1월	1.9: 중국 첫 사망자 발생 1.15: WHO, 사람간 전염 가능성 인정 1.21: 미국 첫 확진자 발생 1.23: 유럽 첫 확진자 발생(프랑스) 1.30: WHO,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1.20: 국내 첫 확진자 발생(중국인) 1.24: 국내 첫 내국인 확진자 발생(우한 입국 남성) 1.27: 감염병 위기 경보 상향(주의→경계) 1.30: 국내 첫 2차 감염자 발생 1.31: 우한교민 368명 임시항공편 귀국
2020년 2월	2.2. 중국 외 첫 사망자 발생(필리핀) 2.11: WHO, COVID-19 명명 2.23: 이스라엘, 한국인 입국 금지 2.28: WHO, 코로나19 위험 수준 최고단계로 격상	2.18: 대구 신천지교회 첫 감염 사례 확진(31번 확진자) 2.20: 국내 첫 사망자 발생(청도 대남병원) 2.21: 대구·경북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2.23: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수준 상향 2.23: 전국 유·초·중·고 개학 연기 2.26: 국내 누적 확진자 1천명대 진입 2.29: 국내 일일 확진자 최다 발생(909명)
2020년 3월	3.11: 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3.13: 미국 국가 비상사태 선포 3.19: 이탈리아 사망자 수 중국 초과	3.9: 공적마스크 5부제 시작 3.22: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3.24: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3.30: 정부, 하위 70%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2020년 4월	4.7: 미국 확진자 40만명 돌파 4.27: 우한 확진자 전원 퇴원	4.9: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4.9: 온라인 개학 실시(고3, 중3) 4.23: 정부,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2020년 5월	5.15: WHO, 소아 괴질 코로나바이러스 연관 경고	5.6: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 5.7: 이태원클럽 관련 첫 확진자 발생 5.11: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5.20: 초·중·고교 등교수업 시작(고3)
2020년 6월 이후	7.1: 유럽연합, 한국인 입국 허용	6.1: 마스크 5부제 폐지 6.8: 모든 초·중·고교 등교수업 시작 7.12: 공적 마스크 판매 종료

별, 카드사별 신청비율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체 지급액의 절반이 신용카드로 지급되었고 BC카드의 카드점유율이 지원금 신청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분석자료에 포함된 지급총액은 약 680억 원 정도이며, 이는 수원시 전체 BC카드 월간결제액의 48.6%(2020년 5월 기준)에 달한다.

2020년 7월 말 시점에도 여전히 미국, 브라질, 인도 등 전 세계, 전 대륙에서 코로나19의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팬데믹 상황은 지속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른바 K-방역으로 불리는 방역대책의 성과와 함께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인해 2차 대유행의 불안감 속에서 경제·사회활동을 점차적으로 재개하고 있다.⁹⁾

2) 코로나19 확산의 경제적 영향

재난은 인간의 정주공간에 엄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국가와 지역의 성장을 위협한다. 재난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은 주로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 추정이 중심이 되어 왔는데, 최근에는 재난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간접적 경제손실까지도 고려하는 연구들로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재난의 파급영향에 대한 연구는 자연재난 중심, 초기 피해상황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재난, 복합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며, 특히 지역적 영향의 차이까지를 고려한 연구는 더더욱 부족하다(최충익, 2017).

코로나19와 관련된 언급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중 하나가 ‘전례(前例)가 없다’일 정도로, 코로나19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코로나19가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나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장거리 운송의 증가, 국가 간 상품 수

9) 본 연구의 초고를 작성한 이후에도 국내 코로나19 발생 양상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8월 중순부터 교회와 보수단체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수도권 중심의 2차 대유행이 현실화 되면서 8월 말 일일 확진자가 441명까지 증가하였으며, 지역감염이 한달째 일일 100명 이상 발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등 그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8월 23일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이어 집단감염이 확산되는 수도권 지역은 8월 30일부터 밤 9시 이후 식당 매장 내 취식금지 등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주간 시행하고 있다.

출입의 증대, 도시화, 산업화, 지구온화, 지구온난화에 따라 각종 초국가적인 감염병의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연결성이 높아질수록 감염병의 세계적 영향력은 커지게 된다(최병두, 2015; 박희석 외, 2020).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pandemic)이 선언된 것은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에 이어서 세 번째이며, 1918년 스페인독감, 2002년 사스(SARS) 등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와 비교되는 과거의 사례들은 여럿 존재한다. 최근의 사례에 해당하는 사스는 2003년 중국의 성장률을 0.5~1% 감소시켰으며, 전 세계적으로 540억 달러의 피해를 주었다. 하지만 지금의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과급력을 예측하는 데 기존의 사례는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Lee and McKibbin, 2003; Fernandes, 2020).

이미 세계경제의 침체는 여러 측면에서 예측되고 있다. OECD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하던 2020년 3월, 전 세계 GDP 성장률 전망을 전년도 2.9%보다 줄어든 2.4%로 발표하였다. 하지만 불과 3개월 후인 6월 경제전망에서 2020년 전 세계 GDP는 전년도에 비해 6% 감소할 것이며 2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7.6%까지 감소할 수도 있다고 예측하였다. 불과 3개월 만에 GDP 성장률을 10%나 낮출 만큼 코로나19가 미치는 경제 충격은 그 끝을 알 수가 없다. 더욱이 이러한 성장률 저하는 선진국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 OECD 국가들의 경우 시나리오에 따라 성장률이 -7.5~-9.3%에 이를 수도 있으며, 세계경제가 2019년 4분기 수준을 회복하는 데에는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OECD, 2020a, 2020b). 코로나19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 받은 여행 및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5,0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수요와 공급의 감소를 넘어 공급망 체인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제조업체들의 75%가 기존 공급망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상품의 생산 시작부터 완성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리드타임(lead time)이 2배로 증가하였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다(Nicola et al., 2020; Fernandes, 2020).

OECD 전망에 따른 우리나라의 2020년 GDP 증가율은 -1.2~-2.5%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편이긴 하지만, 그 동안의 경제성장 추세에서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한국은행이 2020년 6월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5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조사업체의 76.4%는 금년 2~4월 중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응답하였으며, 13%는 이미 경영 악화로 인력을 축소한 가운데 27%의 기업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한국은행, 2020b). 한국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경제심리지수(ESI)와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 경제심리지수는 2020년 3월에 전월의 87.2에서 63.7로 하락하면서 2015년 6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였으며, 소비자심리지수는 2020년 4월에 70.8을 기록해 2008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즉, 코로나19가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와 소비활동 역시 급격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박희석 외, 2020).¹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아직까지 세계나 국가 차원에서의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현재진행형인 상태에서 국제적·국가적 차원의 영향 역시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사회 단위까지 그 영향을 분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외부변수에 따른 지역경제의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은 주로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한 지역산업연관분석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1930년에 개발된 산업연관모델에 이어 Isard가 1951년 제안한 지역산업연관모델은 지역의 상이한 경제 및 산업구조를 기반으로 지역간, 산업간 상호연관관계와 의존 관계를 분석하는데, 재

10) 경제심리지수는 경기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를 조사한 것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로 구성된다. 소비자심리지수는 과거 15년간의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관적인 기대심리의 평균을 100으로 설정하여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 비관적임을 나타낸다.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 저점을 기록한 이후 5월 77.6, 6월 81.8, 7월 84.2로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난발생에 따른 지역경제의 영향은 재난발생을 충격으로 보고 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추정한다(Rose, et al., 1997; 문지호·한상린, 2016).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역산업연관표가 국가 단위의 산업연관표에 비해 업종 구분도 구체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20년 7월에 2015년 지역산업연관표가 발표될 정도로 현재의 동태적인 경제여건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결정적으로 지역산업연관표는 광역 단위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의 경제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활용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이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외부 이벤트를 특정하기 자체가 어렵다는 문제 역시 남아있다.

구체적인 지역경제의 영향 양상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외활동의 기피 현상으로 인해 기존 오프라인 소비활동의 온라인화가 가속화되면서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영향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ICT 기술과 스마트폰 보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언택트 유통기술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보편화되면서 2020년 3월 기준 국내의 온라인 매출액은 전년 동월대비 16.9% 증가한 반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액은 17.6% 감소하였다. 언택트 소비는 우선은 온라인플랫폼이 주도하는 양상이지만 자본력을 갖춘 유통대기업의 오프라인 매장들 역시 빠르게 언택트 기술을 도입하면서 온라인 전용 채널과의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진보와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응능력이 취약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오롯이 받게 되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의 충격을 수반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소비방식의 변화가 코로나19의 종식과 함께 기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뉴노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상권이 받는 영향이 항구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배영임, 2020; 신기동, 2020).

3)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경제 동향 분석

IT기술의 진보를 바탕으로 한 ‘제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변화는 사회 전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미 인공지능(AI),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사물인터넷(IoT) 등의 핵심기술은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새로운 혁신의 바탕에는 디지털 환경에서 방대한 규모로 생성되는 소위 빅데이터의 분석을 통한 정보의 축적이 자리하고 있다(박선우, 2018). ‘빅데이터’(Big data)란 2011년 맥킨지의 보고서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기존 방식의 데이터 처리기술로는 수집·저장·관리·분석이 어려운 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한다(Manyika et al., 2011; 최재원·손봉진·임현아, 2019). 빅데이터는 연산이 가능한 정형데이터 뿐만 아니라 텍스트, 이미지 등 비정형 데이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방대한 용량(Volume), 형태의 다양성(Variety), 빠른 속도(Velocity), 정보의 정확성(Veracity), 높은 가치(Value) 등 ‘5V’로 표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Power, 2014; De Mauro et al., 2016). 빅데이터는 데이터 자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적·정책적 활용에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산업적 영역을 넘어서 학술분야에서도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 논의를 계기로 불붙은 데이터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관련 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존에 비해 다양하고 방대한 데이터들이 실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었다. 각 학문별로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에서도 빅데이터의 활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고 있다(이규범·김도우, 2017; 심원섭·최승묵·심창섭, 2018; 손정렬, 2020). 하지만 사회과학 연구에서 개인연구자 차원의 빅데이터 활용은 포털사이트나 SNS 등 소셜 빅데이터 분석이 중심을 이루는 경우가 많으며, 신용카드 빅데이터나 이동통신 데이터의 경우에는 활용이 아직까지 제한적인 편이다. 이것은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개인 연구자도 비교적 손쉽게 구득할 수 있는 소셜 빅데이터에 비해 신용카드 빅데이

터나 이동통신 데이터 등 기업에서 생산·관리하는 빅데이터의 경우 구득 비용이 높기 때문에 학술연구보다는 정책적·영리적 목적의 연구프로젝트에서 주로 활용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로 인해 이 유형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충분한 학술적 논의나 지식의 공유·축적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심원섭·최승묵·심창섭, 2018).

본 연구에서 활용한 신용카드 빅데이터의 경우 소비관련 동향을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 높다는 점에서 학술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여러 검토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신용카드 소매지출액과 실물경제와의 높은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를 공식통계로까지 채택하고자 하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Hasan, et al., 2013, Kitchin, 2015). 국내에서도 역시 김경근·염명배(2015, 2017)는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가 민간소비 동향, 특히 지역 단위의 소비동향 관련지표로서 통계청의 소비관련 지표가 가지는 시차의 문제를 극복하고 최신 소비상황을 속보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실증분석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매판매와 상관관계가 높으며 민간소비와의 시차상관계수도 당기에서 가장 높아 지역단위의 소비 대리변수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민간소비를 통한 지역의 경기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번 코로나19 발생은 비대면 기술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급속하게 촉진하였는데 빅데이터의 활용 측면 역시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정부 차원의 방역대책 수립과 방역효과 분석에서 이동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구이동량 변화를 평가하는가 하면, 특히 공공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경제의 영향에 대한 동향보고서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이유진·성영조, 2020; 윤신희, 2020), 현재까지는 지역경기 변화를 가장 즉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기초동향 파악과 1차 분석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이러한 경향은 그동안 부족했던 관련 연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향후 방법론에 대한 논의 및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신용카드 빅데이터 기반 연구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수원시 지역상권의 영향

1) 행정구역별 영향의 양상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인 2019년 10월과 11월의 수원시 전체 BC카드의 월별 일일평균매출액은 각각 45.4억 원과 46.1억 원 정도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 이후 기간의 월별 일일평균매출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원시 전체 신용카드 매출액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2020년 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3월에 최저 수준을 형성하는 양상을 보인다. 2019년 10월과 11월의 평균액을 기준값인 100으로 할 때 2020년 3월에는 약 18% 정도 감소한 82.34를 기록하였는데, 구별로는 팔달구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 26% 이상이 감소한 73.16을 기록하였으며, 권선구 지역이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어 88.21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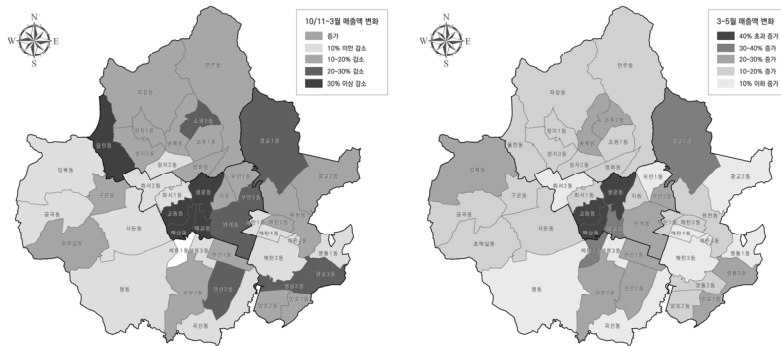
신용카드 매출액은 4월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5월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시기의 수준을 거의 회복하게 되는데, 2020년 4월에는 매출지수가 전월 대비 10% 이상 증가한 90.72로 반등하기 시작하여 5월에는 수원시 전체의 매출지수가 98.43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특히 1~3월의 코로나19 확산기에 상대적으로 매출 감소가 적게 나타났던 권선구와 영통구는 오히려 5월 시점에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높은 수준까지 매출이 증가한 반면, 4개 구 중 매출감소가 가장 컸던 팔달구는 3월 이후 가장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5월 매출지수가 93.42로, 앞선 시기 매출 감소를 완전히 극복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행정동별로는 코로나19 확산기에 권선구 호매실동과 영통구 광고2동을 제외한 수원시 전역이 매출 감소를 경험하는데, 특히 수원시의 중심상권 중 하나이자 원도심 지역에 해당하는 팔달구 동들과 인계동, 영통 등이 매출액 증감비율에서 타 지역에 비해 두드러진 감소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화성행궁에서 수원역으로 이어지는 원도심 지역에 해당하는 팔달구 행궁동, 매교동, 매산동, 고등동의 3월 매출지수는 각각 69.95, 67.45, 61.59, 62.23에

〈표 3〉 코로나19 이후 수원시 월별 신용카드 매출액 변화

구분	10-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수원시 전체	100.00	102.08	97.33	89.29	82.34	90.72	98.43
장안구	100.00	99.15	95.50	90.05	83.25	89.87	97.58
권선구	100.00	100.88	98.79	93.27	88.21	95.35	101.62
팔달구	100.00	104.27	97.24	82.88	73.16	82.48	93.42
영통구	100.00	102.81	97.14	91.84	85.97	95.70	101.27

〈그림 2〉 코로나19 발생 이후 행정동별 매출액 변화(左: 10·11월~3월, 右: 3월~5월)



그치고 있으며, 행정동 중 매출지수가 가장 낮은 곳 역시 이 지역들과 인접한 수원역 근처의 권선구 세류1동으로 60.58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호매실동과 광교2동은 유이하게 코로나19 발생에도 불구하고 매출 증가가 나타나는데, 이는 이 지역이 호매실 택지개발지구 및 광교신도시 건설에 따라 최근 들어 신축상가의 점포 입점 등을 통해 계속해서 상권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과 주거 위주의 신도시 지역으로 거주지 인근의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판단된다.

4월 이후의 코로나19 진정기에는 앞서 매출 감소폭이 컸던 지역의 증가가 두드러지지만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고등동, 매산동,

행궁동 등 코로나19 확산기에 큰 폭의 매출 감소를 경험한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3월에 비해 5월에는 40% 이상의 매출 증가가 나타나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까지의 급격한 매출 감소로 인해 고등동, 매산동, 세류1동의 5월 매출지수는 각각 93.06, 86.57, 78.93으로 수원시 44개 행정동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 가맹점 특성별 영향의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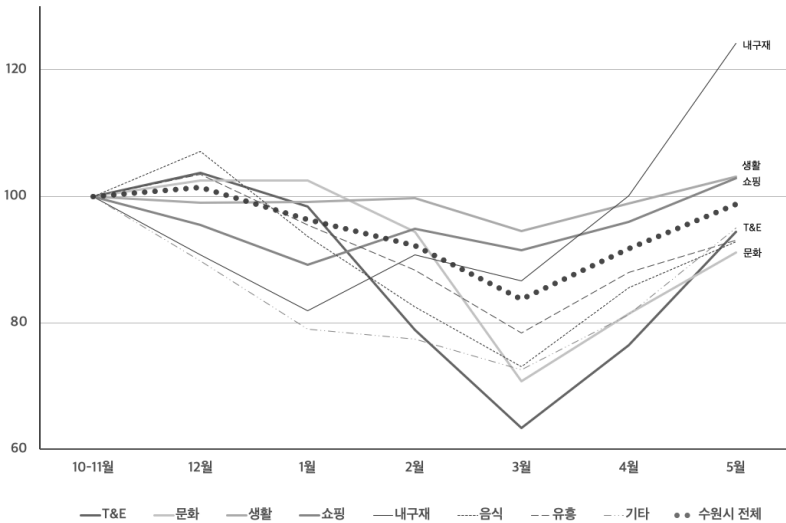
(1) 업종별 양상

우선 가맹점의 업종대분류에 따른 매출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업종은 T&E(Travel and Entertainment)와 문화 업종이다. 여가 관련 산업으로 대표적인 비필수 소비영역에 해당하는 T&E와 문화업종은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이 본격화된 2월부터 급격하게 매출이 감소하는데, 가장 큰 매출 감소를 겪은 T&E 업종의 3월 매출지수는 63.39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3 이상의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문화 업종 역시 70.70으로 약 30%에 가까운 매출이 감소하였다. 반면 가장 영향을 적게 받은 생활과 쇼핑¹¹⁾ 업종의 경우 3월에도 90 이상의 매출지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가 상대적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4월부터는 전체 업종에서 매출 회복 추세가 나타나는데 회복속도는 대체적으로 3월까지의 매출 감소 수준에 비례하는 경향을 보인다. 큰 폭의 매출 감소를 경험하였던 T&E 업종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지만 매출지수는 여전히 수원시 전체 평균 이하의 수준이며, 3월까지 매출 감소가 적었던 생활, 쇼핑 등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 이상을 회복하였다. 특이하게 내구재 업종의 경우 3월까지의 매출 감소가 크지 않았음

11) 〈생활〉 업종은 연료판매, 유통업, 직물, 자동차정비, 의료기관, 보건/위생, 음식료품 등이 해당하며, 〈쇼핑〉 업종은 의류, 신변잡화 등이 해당한다.

〈그림 3〉 업종대분류별 신용카드 매출액 변화 추이



에도 불구하고, 가구, 가전, 자동차 판매 등 분류에 포함된 하위 업종 대부분에서 큰 폭의 매출 증가가 나타나면서 이전 수준을 훨씬 상회하게 된다.¹²⁾ 이것은 코로나19 확산기에 억제되었던 소비가 코로나19의 진정에 따라 회복소비의 형태로 나타난 것에 더해 4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재난기본소득과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각종 지원정책의 도입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업종소분류를 기준으로 2019년 10·11월과 2020년 3월의 매출액을 비교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출감소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 10월 기준 월 1,000건 이상

12) 내구재 업종에 속하는 하위 업종의 3월과 5월의 매출변화를 중분류 별로 살펴보면 가구 70.39→180.56, 가전제품 81.87→137.51, 주방용품 65.00→137.32, 사무/통신기기 84.48→178.50, 자동차판매 100.74→196.50 등으로 전체 업종에서 큰 폭의 매출증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의 신용카드 승인내역이 존재하는 94개 업종 중 76.6%에 해당하는 72개 업종에서 매출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이 중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업종이 22개(23.4%)에 달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전방위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

업종소분류 중 가장 매출이 감소한 것은 사무기기 업종으로 재택근무 확산, 창업 감소 등에 따른 수요 감소로 3월의 매출이 전년 10~11월에 비해 99.7% 감소해 1/300 이하로 줄어들면서 사실상 업종 전체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고 볼 수 있다. 각 급 학교의 개학연기와 정부의 학원 휴원 권고 등이 이어지면서 초중고학원, 예체능학원, 외국어학원 등 각종 학원들 역시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외에도 대면접촉의 기피에 따라 수영장, 영화관, 사우나 등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역시 코로나19 확산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이에 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과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가정 내 체류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소비는 오히려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온라인 소비의 증가에 따라 인터넷쇼핑 관련 업종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두드러진 매출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며,¹³⁾ 서점과 화원 등 가정 내 여가활동과 관련된 업종 역시 매출이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외식 및 외출 자제에 따라 가정 내 식사 비중이 높아지면서 농축협직영매장, 정육점 등 육류를 중심으로 식재료 관련 업종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증가한 업종에 해당한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한편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인 4~5월의 기간 역시 소분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 기간 동안 매출이 가장 크게 증가한 업종은 각종 학원과 사무기기 업종 등 코로나19 확산기에 가장 큰 매출감소가 발생한 업종이다. 초중고학

13) 온라인 거래의 경우 가맹점의 오프라인 소재지(본사) 주소를 기반으로 거래내역이 생성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타난 매출 증가는 수원시에 소재한 온라인쇼핑 업체의 매출만을 포함하는 것이다. 실제 온라인 거래에서 대형업체의 점유율이 높고, 이들 업체가 주로 서울 등 타 지역에서 본사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인터넷몰의 매출 증가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4〉 코로나19 확산기 업종별 매출 변화 정도 (10·11월~3월 매출액 비교)

증감율 하위 10개 업종		증감율 상위 10개 업종	
업종	증감율	업종	증감율
사무기기	-99.7%	인터넷종합Mall	82.4%
초중고학원	-99.4%	일반서적	41.8%
수영장	-86.0%	농축협지역매장	25.1%
예체능학원	-83.9%	세탁소	25.1%
영화관	-83.2%	화원	24.2%
구내매점	-77.9%	정육점	20.9%
기타교육학원	-69.6%	슈퍼마켓	18.6%
신발	-64.6%	공공요금	13.2%
사우나	-63.9%	기타전기제품	12.3%
외국어학원	-63.3%	농축수산물	11.5%

* 2019년 10월 기준 월 승인건수 1천건 이상의 업종만을 대상으로 정리

원, 사무기기, 수영장 등 매출 증가율 상위에 포함된 다수의 업종은 코로나 19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업종으로, 3월 이후 비율적으로는 매우 높은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초중고학원의 경우 5월 매출은 3월에 비해 36 배 가량 증가하였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전년도 10~11월과 비교하면 여전히 1/4 수준에 불과하다.

오히려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실질적인 매출증가 효과를 누린 것은 주로 의류 및 신발 등의 잡화, 가정용품 관련 업종으로, 이들 업종은 3월 이후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서는 매출을 기록하였다. 즉 초중고학원, 사무기기, 수영장 등의 업종은 3월까지의 엄청난 매출 감소로 인해 비율 측면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이 대폭 증가한 것 같은 착시효과를 나타내는 것인 반면, 실제 시민들이 재난기본소득 수령에 따른 일시적인 소득증가 효과로 소비를 확대한 것은 의류와 잡화를 중심으로 한 개인 소비용품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안정점(71.9%), 정육점(8.9%) 등 언론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수혜업종으로 주로 언급되었던 업종도 상당 정도 매출 증가를 보였지만, 그 정도가 두드러지지 않는 수준

〈표 5〉 코로나19 진정기의 업종별 매출 변화 정도(이전 시기와 2020년 5월의 비교)

증감율 상위 10개 업종			증감율 하위 10개 업종		
업종	3월 대비	10·11월 대비	업종	3월 대비	10·11월 대비
초중고학원	3,598.8%	-76.0%	유흥주점	-48.1%	-73.3%
사무기기	914.6%	-96.7%	인터넷종합Mall	-38.4%	12.4%
침구수예점	435.0%	163.1%	영화관	-32.4%	-88.7%
신발	351.8%	59.9%	주차장	-30.6%	-46.7%
예체능학원	286.1%	-37.8%	LPG(연료판매)	-16.5%	-17.7%
기타의류	188.0%	19.7%	공공요금	-14.3%	-3.0%
헬스크럽	182.4%	31.6%	위탁급식업	-10.8%	-64.2%
수영장	181.8%	-60.5%	주유소	-10.7%	-25.3%
구내매점	179.0%	-38.5%	단란주점	-7.6%	-34.7%
스포츠타일류	157.9%	9.2%	인테리어	-4.6%	-19.7%

*2019년 10월 기준 월 승인건수 1천건 이상의 업종만을 대상으로 정리

이다.¹⁴⁾

이에 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도 불구하고 3월에 비해 5월에 오히려 매출이 감소한 업종은 유흥 관련 분야와 주유소 등의 에너지 판매, 위탁급식업 등이다. 5월에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의 영향으로 유흥업소의 영업을 대부분 금지되면서 유흥주점은 3월에 비해 오히려 매출이 -48.1%로 대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외출 및 여행 자제에 따른 차량운행 감소로 인해 주유소와 LPG 등 에너지 판매관련 업종 역시 매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등교수업 최소화, 실내 다중이용시설 기피 등이 계속되면서 위탁급식업과 영화관의 매출 감소도 심각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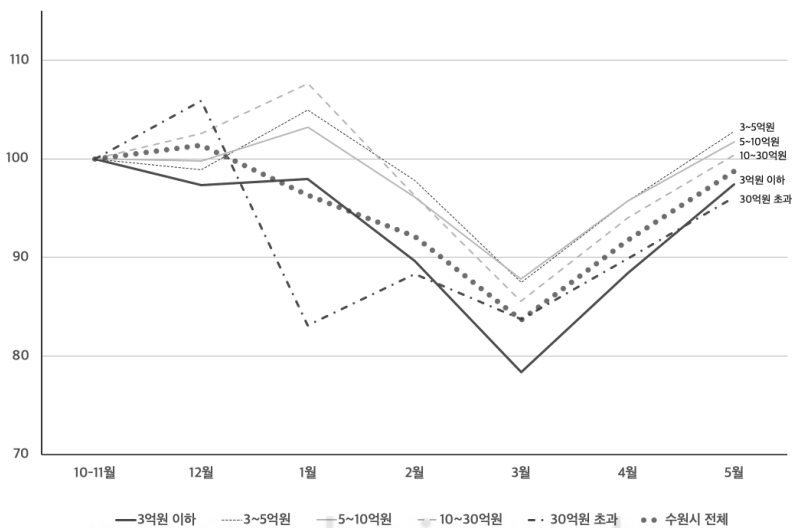
(2) 매출액 규모별 양상

다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위기대응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14) “지원금 쓰는 기쁨 쏘솔해요.. 재난지원금에 열린 서민 지갑”, 《MBN 뉴스》, 2020년 5월 24일.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던 만큼 가맹점의 매출액 규모에 따른 영향을 확인해 보았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BC카드에서 분류한 가맹점 규모별 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기존의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코로나19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즉 매출액이 적을수록 코로나19 확산기의 매출감소가 적게 나타나고 매출액 규모가 커질수록 매출 감소의 정도는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특징적인 것은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가장 매출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규모에 따른 매출액 감소 경향과는 반대로 3월까지의 코로나19 확산기에 타 유형에 비해 두드러진 매출 감소가 나타나는데, 특히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한 3월의 매출지수는 78.34로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였다. 반면 연매출 30억 원 초과와 30억 이하의 대형가맹점 역시 상대적으로 큰 매출감소가 나타나는데 실질적인 매출 감소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적인 대유행에 들어가기 전인 1월에 주로

〈그림 4〉 매출액 규모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액 변화 추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코로나19의 영향보다는 10~11월, 1월의 계절적 요인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4월 이후 영세가맹점의 매출 회복속도는 타 유형에 비해 다소 빠른 편이지만, 여전히 중소기업에 비해 매출 감소의 폭이 큰 실정이다. 자영업자 중심의 영세가맹점이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및 여유자금 등이 가장 부족한 취약계층임을 고려한다면 결국 이 집단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크게 직면하였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흔히 영세 소상공인 또는 영세 자영업자로 통칭되는 지역상권 내 소규모 매장들에 있어서 그 분류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3) 사용자 특성별 영향의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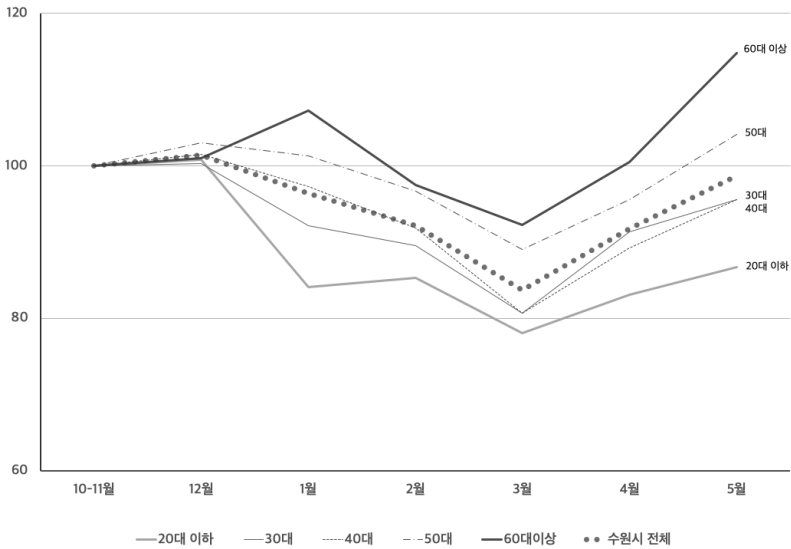
(1) 소비자 연령별 양상

이번에는 소비자의 측면에서 사용자 연령별로 구분해서 소비규모 변화를 살펴보면, 소비 감소의 정도는 대체적으로 사용자 연령과 부(-)의 관계를 형성한다. 사용자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3월까지의 소비 감소 정도가 적으며, 4월 이후 소비수준 회복의 기울기 역시 가파르게 나타난다. 이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세대주의 비율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개인 차원의 소비뿐만 아니라 식료품 등 가정 내 필수 소비 규모가 사용액에 더 많이 포함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소비자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앞서 업종별 변화 특성에서 살펴보았던 상대적 비영향 업종인 생활, 쇼핑 업종 분야의 소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된다.¹⁵⁾

소비자 연령별 코로나19의 영향에서 특징적인 것은 20대 이하의 소비 감소가 타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5월 황금연휴를 계

15) 연령대별로 전체 소비액 대비 생활 업종의 소비액 비중을 보면 20대의 경우 39%인 반면, 30대는 47%, 40대는 49%, 50대는 54%, 60대 이상은 62%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5〉 사용자 연령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액 변화 추이



기로 확산된 이태원發 집단감염으로 인해 젊은층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 준수 미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었다.¹⁶⁾ 하지만 오프라인 카드 소비액의 감소가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활동 자체의 축소를 의미하는 만큼 20대의 소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그 동안 특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일반적인 인식과는 상반되는 결과라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20대 이하 연령층의 소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한 것은 대학 등의 개학연기 및 온라인 수업 진행에 따라 20대의 외부활동이 타 연령층에 비해 가장 많이 제한되었던 것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즉, 코로나19의 확산 이후에도 출근 등으로 인해 기존의 외부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가족 단위의 필수 소비를 유지해야 하는 30대 이상과 달리 20대 이하의 청년층은 12월 이후

16) “이태원 클럽발 확진 2/3는 20대…코로나19 인식 보니”, 《SBS 8뉴스》, 2020년 5월 11일.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이미 줄어들었던 소비 규모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외부활동의 제약이 지속됨에 따라 기존의 소비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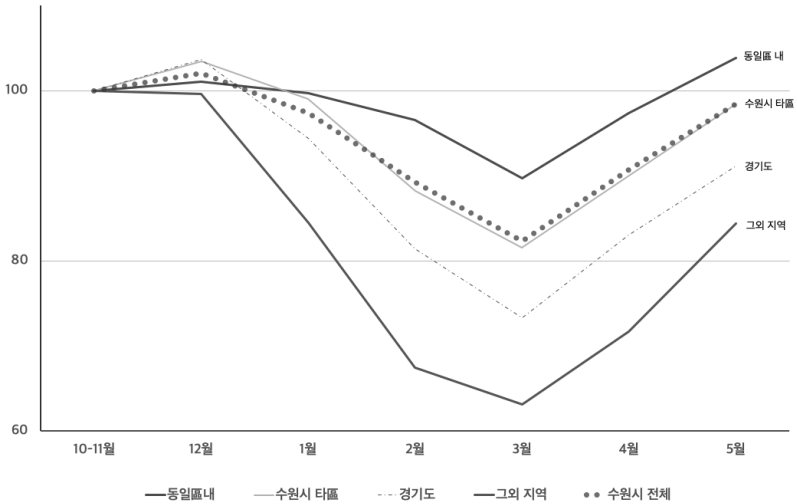
코로나19의 확산기에 나타나는 연령별 경향은 4월 이후의 진정기에도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는데, 20대 이하의 소비 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나타나는 반면, 상대적으로 소비 감소가 적었던 5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은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5월 지수가 각각 104.14와 114.80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게 된다. 이 결과에서 5월에도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완화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50대 이상에서 이전 수준 이상의 소비를 보이는 것은 소비심리의 회복뿐만 아니라 재난기본소득의 영향 역시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5월에 지급이 시작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 전체의 지원금이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비 증가에 영향을 더욱 많이 미쳤다고 볼 수 있다.¹⁷⁾

(2) 사용자 거주지역별 양상

다음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과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소비활동의 공간적 범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 거주지역별로 구분해 소비 변화를 살펴보았다. 공간적 범위를 유형화하기 위해 카드 사용자의 주소지와 매출 발생지역을 바탕으로 수원시 동일구(區) 내, 수원시 타구, 경기도 지역, 그 외 지역의 4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는데 원거리 거주자일수록 코로나19 확산기의 수원 지역 내 소비 감소가 두드러진다. 소비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사용자는 경기도를 제외한 그 외 시·도 지역 거주자로

17) 3월 이후 세대별 카드사용액 증가 비율의 차이에는 여기에서 기술한 요인 이외에 세대별 신용카드 사용행태의 차이에 따른 요인도 있을 수 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출에서 신용카드 사용 비중은 낮아지는 패턴을 보이는데(한국은행, 2020a), 재난기본소득이 신용카드,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되면서 평소에 신용카드 사용 비중이 낮았던 5~60대에서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이전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 빈도를 높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림 6〉 사용자 거주지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액 변화 추이



2020년 2월과 3월의 매출지수가 10·11월에 비해 30% 이상 감소(2월 67.40, 3월 63.12)하였다. 이것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행에 따라 수원을 방문하는 외부 관광객 등 원거리 이동 자체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수원에서 근무하는 타 지역 거주자 역시 직장 주변에서의 회식 등 소비 활동을 줄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수원시가 전체 면적이 서울의 1/5 정도인 121.09km²로 인구규모에 비해 그리 면적이 넓지 않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내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동일 구와 거주지 이외 구에서의 소비 패턴의 변화가 약 7~8% 내외로 꽤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즉, 거주지 인근에 해당하는 동일 행정구 내의 소비는 코로나19에 따른 영향이 적은 반면 타 행정구에서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다. 이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전염병 확산의 과정에서 감염에 대한 불안의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소비를 위한 활동범위를 거주지 인근의 근린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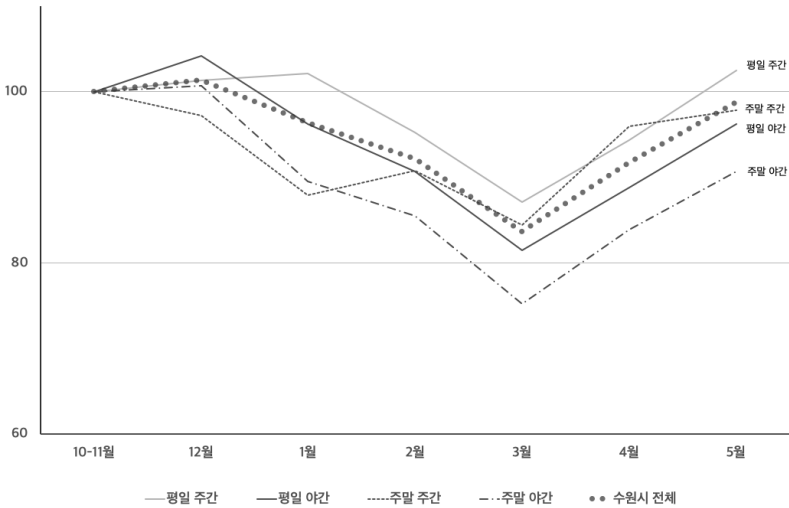
데, 이 때 근린의 범위가 수원시라고 하는 도시 차원의 공간적 범위가 아니라 구 단위 정도의 거주지 인근 지역으로 더욱 협소하게 한정됨을 의미한다. 코로나19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기본소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근린 중심의 소비 패턴은 계속 유지되면서 동일 행정구 내의 소비는 5월 이후 오히려 이전 수준 이상을 회복하기도 한다.

4) 사용시간대별 영향의 양상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확산 이후 소비 패턴을 요일 및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평일보다는 주말의, 그리고 주간보다는 야간의 소비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외부활동과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비필수적인 주말과 야간 시간대의 여가·친교 활동을 우선적으로 축소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행태의 영향으로 특히 주말 야간의 경우에는 3월의 매출지수가 75.24까지 감소하였으며 5월에도 90.67로 가장 더딘 회복 추세를 보인다.

시간대 구분에서 상대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다른 유형과 달리 주말 주간시간의 매출지수는 불규칙한 변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2월에 오히려 이전 월에 비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던 4월에는 타 유형에 비해 높은 증가경향이 나타난다. 여기에는 주로 개인적인 여가·친교 활동이 중심이 되는 야간 시간대와는 달리 주말 주간의 경우 생필품 구매 등 오히려 평일에 미뤄졌던 가족 단위의 필수소비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하나의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4월 이후의 급격한 소비 확대 역시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면서 나들이, 외식 등 주말을 중심으로 가족단위 활동부터 점차적으로 재개하면서 상대적으로 주말 주간 시간대의 소비가 선행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4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역시 여전히 유지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환경 속에서 주로 주말에 가족 단위로 소비하게 되면서 주말의 소비 증가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림 7〉 사용시간대별 신용카드 매출액 변화 추이



4. 수원시 주요 상권별 코로나19의 영향

(1) 수원시 주요 상권 구분 및 특성

지금까지 코로나19에 따른 수원시 전체의 일반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지역 특성에 따른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상권 차원에서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우선 수원 내 주요 상권별 코로나19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에 포함된 수원시 주요 상권과 김도영(2019)의 수원시 상권변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10개의 주요 상권을 설정하였다.¹⁸⁾ 대상이 되는 10개 주요 상권은

18)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에서는 수원시의 주요 17개 상권(32개 구역)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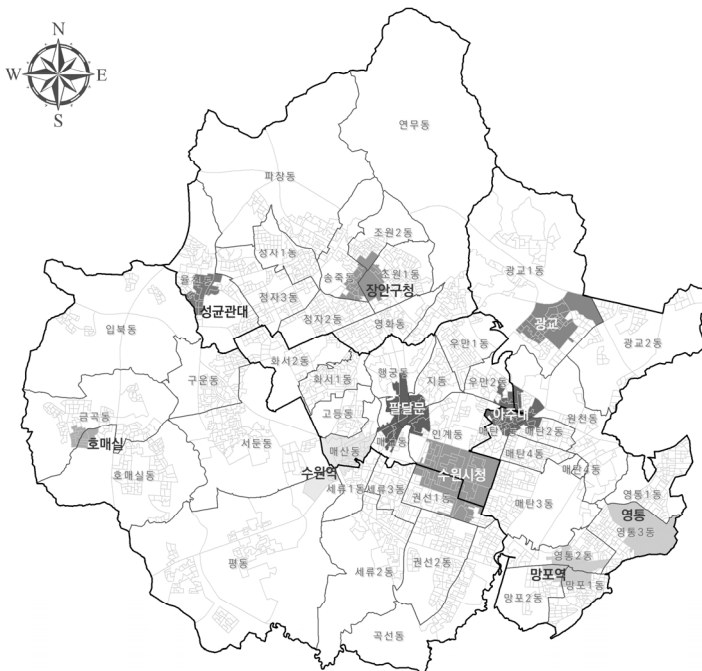
장안구의 성균관대 상권과 장안구청 상권, 권선구의 호매실 상권, 팔달구의 수원역 상권, 팔달문 상권, 수원시청 상권, 영통구의 영통지구 상권, 광고 상권, 아주대 상권, 망포역 상권이다. 분석대상 상권의 공간적 범위는 선행연구 결과에서 제시한 상권 범위를 기준으로 집계구 단위로 설정하였으며, 10개 주요 상권에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지역은 일반 근린지역으로 별도 분류하였다. 특히 소상공인진흥공단의 경우 상권의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데, 수원시의 주요 상권은 업무시설 연계형 상권, 주민생활 상권, 교통중심지 상권, 전통시장 연계형 상권, 대학가 상권 등으로 구분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10개 주요상권은 업무시설 연계형이 4개로 가장 많으며, 주민생활 상권과 대학가 상권이 각 2개, 교통중심지 상권과 전통시장 연계형 상권이 각 1개가 포함된다.

상권별 코로나19의 영향을 살펴보기에 앞서 BC카드의 신용카드 결제데이터를 바탕으로 상권별 매출 특징을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이전인 2019년 10월의 월간자료를 기준으로 우선 상권 전체의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것은 흔히 인계동으로 불리는 수원시청 상권으로, 이 지역은 두 번째로 매출 규모가 큰 수원역 상권과도 꽤 큰 격차를 보이는 수원의 대표적 상권이다. 수원역, 영통지구 등이 수원시청 다음으로 규모가 크며, 호매실 상권은 신생상권으로 타 상권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다. 매출구조에서 특징적인 몇 개 상권을 보면 성균관대 상권은 대학가 상권답게 20대 이하 소비자의 매출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음식·유흥 업종이 중심을 이룬다. 수원역 상권의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비수원 시민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김도영(2019)은 2000년대 이후 상업시설 인허가 현황을 바탕으로 11개의 수원시 주요 상권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분류를 중심으로 하되, 지리적으로 인접해 사실상 단일상권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을 하나의 상권으로 조정하였으며(예를 들어 영통+경희대+그랜드백화점 상권 = 영통상권), 김도영(2019)에서 주요 상권으로 구분한 호매실 상권을 별도로 추가하였다. 이외에 샘내공원 상권 등 소규모 주민생활 상권은 일반 근린상권으로 분류하여 제외하면서 최종적으로 10개 주요 상권을 구분하였다.

〈표 6〉 수원시 주요 상권 현황

유형	상권명	집계구 수
업무시설 연계형 상권	수원시청 상권	37
	장안구청 상권	17
	영통지구 상권	17
	광고 상권	31
교통중심지 상권	수원역 상권	23
전통시장 연계형 상권	팔달문(남문) 상권	16
주민생활 상권	호매실 상권	11
	망포역 상권	22
대학가 상권	성균관대 상권	13
	아주대 상권	29



〈표 7〉 상권별 매출 구성의 주요 특징(2019년 10월 기준)(단위: 원, %)

상권	전체 매출액	20대 이하 비율	영세 가맹점 비율	시간대별		업종 구성			비수원 시민 비율**
				주말 비율	주간 비율	생활+ 쇼핑	T&E+ 문화	음식+ 유흥	
광고	3,163,473,912	13.3	21.3	28.8	60.0	46.4	10.2	38.4	39.6
망포역	3,569,487,874	16.4	14.4	25.8	57.7	44.5	16.1	35.4	24.8
성균관대	2,544,952,261	44.8	33.8	28.4	42.7	30.7	9.7	58.3	32.9
수원시청	12,772,959,423	23.5	17.7	33.1	52.3	43.4	10.1	40.5	37.8
수원역	7,444,920,965	36.7	20.7	36.2	52.2	41.8	12.7	43.9	54.2
아주대	4,475,304,383	23.2	25.3	25.5	58.4	50.6	8.2	38.9	12.2
영통지구	7,039,464,924	20.2	21.9	28.0	55.4	48.1	16.0	39.6	40.6
장안구청	2,571,246,508	16.5	25.2	27.6	61.7	47.5	13.9	36.4	12.0
팔달문	4,802,075,382	7.9	30.2	33.0	75.5	58.6	11.4	30.1	30.7
호매실	94,412,320	11.4	44.7	23.6	53.2	50.4	14.4	35.2	13.2

* 모든 수치는 매출액 기준 비율임

** 소비자 거주지역은 행정동 단위 데이터에만 포함되어 있어 불가피하게 해당 상권이 소재한 행정동 자료를 활용 하였음. 여러 동에 걸친 상권의 경우 집계구 수 기준으로 가장 많은 동의 값을 할당

이용 비율과 주말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며, 20대 이하 소비자의 비중 역시 높은 편이다. 반면 팔달문 상권의 경우 전통시장이 밀집한 지역답게 20대 이하 소비자의 비중이 현저하게 낮으며, 주간 시간대 매출과 생활·쇼핑 업종의 매출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아주대 상권의 경우 대학 상권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20대 이하의 비중이 낮고, 생활·쇼핑 업종의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것은 상권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대학과 공간적으로 이격된 아주대삼거리 지역에 해당해 사실상 주민생활 상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 상권별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수원시의 주요 상권별 영향 정도를 개별 상권별로 보면 수원시 주요 상권 중에서 코로나19 확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은 교통중심지형 상권인 수원역 상권과 대학가 상권인 성균관대 상권이다. 수원역 상권의 3월 매출

지수는 65.26에 불과하며 어느 정도 매출을 회복한 5월에도 89.70에 그친다. 이것은 수원역 상권이 철도 및 전철 환승역이자 대형 쇼핑시설 및 유흥가가 밀집해 수원시 내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대면접촉 및 다중이용시설 기피 현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수원역은 광역버스 및 화성, 안산 등 주변지역으로의 시외버스 노선이 집중된 지역으로 비수원 시민의 매출비율과 주말 매출비율이 타 상권에 비해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앞서 사용자 거주지역별 영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원시민에 비해 수원 외부 거주자들의 수원 내 소비 감소가 컸다는 점에서 수원역 상권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외에도 감소폭이 컸던 주말매출, 20대 이하 매출, 유흥업종 비율 등이 수원역 상권을 특징짓는 주요한 요소들이라는 점에서 이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원역 상권에 직접적이고 두드러진 타격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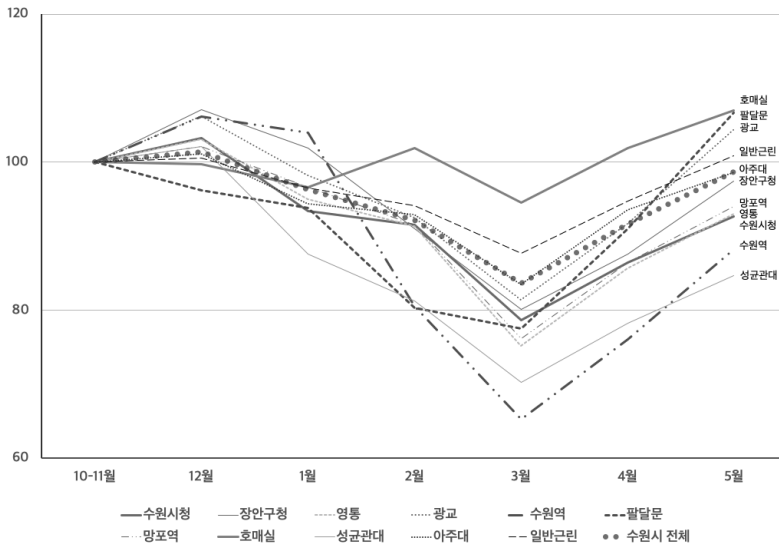
성균관대 상권의 경우 이미 1월부터 겨울방학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던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영향까지 더해 가장 매출 회복이 더디게 나타나는데, 이는 성균관대가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데다가 상권 주변에 대학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집객시설이 없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즉 높은 20대 이하 매출비율을 특징으로 하는 독립적인 대학가 상권으로서의 특징이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대응에 있어 취약성을 노출한 것이다.

수원역 및 성균관대 상권과 함께 또 하나 특징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팔달문 상권의 변화 양상이다. 팔달문 상권은 흔히 남문 상권으로도 불리는데 현재는 많이 쇠퇴하였지만 수원의 전통적인 중심상권이자 변화하였으며, 못골시장, 영동시장, 지동시장 등 9개 전통시장이 밀집된 지역이기도 하다. 전통시장 연계형 상권으로 구분되는 팔달문 상권의 경우 매출 감소와 회복에 있어 코로나19의 시기별 영향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다. 수원역 상권과 마찬가지로 팔달문 상권은 2월에 매출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 매출지수가 10개 상권 중 가장 낮은 80.27을 기록하기도 하였지만 4월 이후 매우 빠른

〈표 8〉 주요 상권별 매출지수 변화 추이

구분	10-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수원시 전체	100.00	101.42	96.36	92.12	83.65	91.68	98.74
광고	100.00	106.25	98.24	92.57	81.46	91.68	104.47
망포역	100.00	102.10	96.61	91.52	76.15	86.42	94.07
성균관대	100.00	102.16	87.61	81.26	70.23	78.21	84.69
수원시청	100.00	103.32	93.41	91.58	78.64	86.43	92.66
수원역	100.00	106.18	103.95	80.54	65.26	76.10	88.25
아주대	100.00	101.15	94.38	92.98	83.49	93.61	98.64
영통지구	100.00	103.14	94.98	91.43	75.15	85.70	93.09
장안구청	100.00	107.12	101.96	90.99	80.13	87.55	97.48
팔달문	100.00	96.22	93.81	80.27	77.49	91.04	106.68
호매실	100.00	99.74	96.59	101.93	94.52	101.92	107.01

〈그림 8〉 주요 상권별 매출지수 변화 추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5월에는 이전 수준 회복을 넘어 전체 상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인 106.68까지 증가하였다. 타 상권에 비해 팔달문 상권이 4월 이후 가파른 매출 회복세를 보인 것은 여러 요인들 중 우선 재난기본소득 지급에서 그 영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재난기본소득 정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별 시민들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목적도 포함하고 있다.¹⁹⁾ 이를 위해 보다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받은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그 1차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 온라인 및 대형가맹점 이용불가 등의 조치가 마련되었는데, 이에 따라 전통시장 중심의 팔달문 상권이 4월 이후 상대적으로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이어진다. 특히 재난기본소득 사용처의 업종 및 매출액 규모 제한으로 인해 시민들의 상당수가 해당 가맹점의 사용가능 유무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는데²⁰⁾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표적인 사용처로 알려진 전통시장에서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계기로 전통시장에 대한 이용 증진으로 이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우 일반 상업지역에 비해 현금 사용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신용카드 매출액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매출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지역화폐 등 카드 형태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실제 매출증가뿐만 아니라 기존 전통시장 현금매출의 신용카드 대체 현상 역시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수원시청 상권 등 업무연계형 상권의 경우 상권별 변화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은 채 일반적인 시 전체의 경향성과 유사하게 변화하고 있다. 호매실 상권의 경우 주민생활 상권이라는 특징 이외에 상권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호매실 지구의 입주 완료에 따라 최근 들어 상가 입점 등이 늘어나고 있는 신생상권이라는 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적인 영향과 다른 형태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민이 경제방역의 주체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자회견문. 2020년 4월 1일.

20) “판매자도 소비자도 모른다…알쏭달쏭 ‘재난지원금 사용처’”, 《news1》, 2020년 5월 7일.

종합하면 주요 상권별 매출 변화의 양상은 대체적으로 교통중심지-업무시설 연계형-주민생활 상권의 순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 정도가 나타난다. 즉 지역주민 중심의 주민생활 상권과 일반 근린지역의 매출 감소가 타 지역에 비해 가장 적게 나타나는 반면, 외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소비자 거주 지역별 영향과 업종별 영향 정도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가 적은 생활밀착형 업종 비율과 근린 지역 거주자의 상권 내 매출 비율의 정도와 큰 관련성을 가진다. 상권의 기존 매출특성이 코로나19와 같은 외부 충격에 따른 영향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지역상권별 특성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에 대한 지역상권의 대응력과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 차원의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요인이 될 필요가 있다.

5. 요약 및 결론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지난 반년 간 그동안의 생활방식과 경제활동에 있어 급격한 불가항력적 변화에 직면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 재택근무 및 온라인 학습의 도입,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언택트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기반 사회활동이 위축되는 한편, 국제이동의 제한과 함께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른 국내 소비 역시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역경제 역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수원의 지역상권 역시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전체 신용카드 매출이 약 18% 정도 감소하였으며, 대면접촉 기반, 다중이용시설, 비필수적 소비 관련 업종에서 매출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극장 등 여가 및 문화 관련 업종과 학원 등 교육관련 업종, 유흥 관련 업종에서는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경험한 반면, 일상생활과 관련한 기본소비 및 가정 내 여가활동과 관련한 업종은 상대적으로 매출 감소폭이 적거나 오히려 이전 시기에 비

해 증가하는 양상도 나타났다. 한편 상대적으로 위기대응력이 약한 영세업체들에게서 매출 감소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로 인한 영향의 장기 지속과 지역경제의 침체 역시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수원시 전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영향의 정도는 상권별로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작용한다. 외부활동의 자제에 따라 거주지 인근의 소비는 영향을 적게 받는 반면, 외부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일수록 매출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수원 외부 거주민의 수원 내 소비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동일 행정구 내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주민생활 상권에 비해 외부 유동인구가 많은 수원역 상권과 팔달문 상권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인해 20대 이하의 소비가 타 연령층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였으며, 성균관대 상권 등 대학가 상권 역시 직접적인 피해를 노출하였다. 특히 20대 이하 소비자의 매출비중이 높고, 유흥업종의 매출비중이 높은 상권일수록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급격한 매출감소를 경험하였다.

4월 이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소비활동은 이전 수준을 대체로 회복하였으나, 상대적으로 타격을 크게 받은 업종일수록 회복이 느린 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와 재난기본소득의 지급 등에 따라 2020년 5월에는 수원시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가 컸던 유형들의 매출회복 정도가 이전의 감소 정도에 비해 느린 편이었으며, 대면접촉에 기반한 특성을 가졌거나 유흥, 문화활동과 관련한 업종들은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에도 별다른 매출 개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주로 논의되는 거시적 분석의 차원을 벗어나 우리 생활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상권 차원의 영향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 예비적 연구로 시의성을 가지지만, 그 한계 역시 명확하다는 점에서 여러 후속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시기적 문제와 연구자료의 한계로 인해 2020년 5월까지 만

을 대상으로 분석하면서 2020년 3월 이후 진행되고 있는 지역경제의 회복 양상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도시회복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대규모 재정투입이 지속성과 효과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점은 큰 한계로 남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 코로나19 이후의 도시는 어떤 양상으로 변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이 연구가 이러한 예측과 대응에 조금이나마 시의적절하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원고접수일: 2020.08.20

1차 심사완료일: 2020.09.02

1차 수정완료일: 2020.09.14

2차 심사완료일: 2020.09.21

게재확정일: 2020.09.21

최종원고접수일: 2020.09.22

참고문헌

- 김경근·염명배. 2015. 「소비 대리변수로서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지역별 소비특성에 관한 연구」. 《경제연구》. 제33권 1호. 121~142쪽.
- _____. 2017.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별 소비 유출입 특성 연구」. 《경제연구》. 제35권 4호. 129~153쪽.
- 김도영. 2019. 『2000년 이후 수원시 도시공간과 주요 상권의 변화 양상』. 수원: 수원시정연구원.
- 문지효·한상린. 2016. 「외부 사건 충격으로 인한 해외관광객 감소가 서울시 유통산업에 미치는 영향: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유통연구》. 제21권 1호. 129~152쪽.
- 박희석·반정화·정현철·김수진. 2020. 「코로나19 사태가 서울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상공인 및 관광업 대응 방안」. 《정책리포트》. 서울: 서울연구원.
- 배영임. 2020. 「코로나19, 언택트 사회를 가속화하다」. 《이슈&진단》. 제416호. 수원: 경기연구원.
- 손정렬. 2020. 「빅데이터 연구에서의 빅마켓, 빅네임 그리고 빅네트워크: 국제학술지를 통해 본 도시 빅데이터 연구동향」. 《대한지리학회지》. 제55권 2호. 161~179쪽.
- 수원시. 2020. 『수원시 상권 활성화 방안 용역』. 수원: 수원시.
- 신기동. 2020. 「코로나19 시대, 언택트 소비와 골목상권의 생존 전략」. 《이슈&진단》. 제425호. 수원: 경기연구원.
- 심원섭·최승묵·심창섭. 2018. 「관광 빅데이터 분석의 주요 쟁점: 이동통신 및 신용카드 데이터를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제30권 3호. 3~22쪽.
- 오병기. 2020. 「코로나-19 지역경제 영향과 포스트 코로나 정책 과제」. 《월간 공공정책》. 제175호. 61~64쪽.
- 윤신희. 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양시 소비동향 분석 및 시사점」. 《GYRI 이슈브리프 제17호》. 고양: 고양시정연구원.
- 이규범·김도우. 2017. 「공공안전 분야의 빅데이터 연구동향 분석」.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3권 3호. 59~74쪽.
- 이민주·김규환. 2017. 「미세먼지에 의한 대기질 악화가 서울시 상권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연구원 2017 서울연구논문공모전 발표자료.
- 이왕건. 2020. 「코로나19 시대 도시 사회·공간 변화와 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제763호》. 세종: 국토연구원.
- 이유진·성영조. 2020.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 감소와 시사점」. 《GRI 정책 Brief 2020-08》. 수원: 경기연구원.
- 최병대. 2020. 「코로나19' 전후 패러다임의 전환 및 우리에게 주는 교훈」. 수원시정연구원

- 수원시민자치대학 제4회 온라인특강 자료(2020.5.29).
- 최병두. 2015. 「메르스 사태의 지리학과 생명권력의 정치」. 《공간과 사회》. 제25권 3호. 173~192쪽.
- 최재원·손봉진·임현아. 2019. 「KB국민카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실시간 CRM 전략: 스마트 오픈링 시스템」. 《지능정보연구》. 제25권 2호. 1~23쪽.
- 최충익. 2017. 「재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솔로우 성장모형의 적용과 함의」. 《Crisis-nomy》. 제13권 6호. 69~83쪽.
- 한국은행. 2020a. 『지급결제 조사자료: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서울: 한국은행.
- _____. 2020b. 『지역경제 보고서』(2020년 6월). 서울: 한국은행.
- Atkeson, A. 2020. “What Will Be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in the US? Rough Estimates of Disease Scenarios”. NBER Working Paper 26867.
- Bonaccorsia, G., Pierrib, F., Cinellic, M., Floria, A., Galeazzid, A., Porcellie, F., Schmidt, A., Valensise, C., Scalac, A., Quattrociocchif, W. and Pammolli, F. 2020. “Economic and Social Consequences of Human Mobility Restrictions under COVID-19”. *PNAS*. Vol. 117, No. 27. pp.15530~15535
- De Mauro, A., Greco, M. and Grimaldi, M. 2016. “A formal definition of Big Data based on its essential features”. *Library Review*. Vol. 65. No. 3. pp.122~135.
- Dorn, A., Cooney, R. and Sabin, M. 2020. “COVID-19 exacerbating inequalities in the US”, Elsevier Public Health Emergency Collection.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7162639>(검색일: 2020.8.1.)
- Fernandes, N. 2020. “Economic Effects of Coronavirus Outbreak (COVID-19) on the World Economy”.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557504 (검색일: 2020.8.1.)
- Hasan, I., Renzis, T. and Schmiedel, H. 2013. “Retail Payments and the Real Economy”. Working Paper Series 1572. European Central Bank.
- Kitchin, R. 2015. “Big data and official statistics: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risks”, *Statistic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fficial Statistics*. Vol. 31. No. 3. pp.471~481.
- Lee, J. and McKibbin, W. 2003. “Globalization and Disease: The Case of SARS” *Asian Economic Papers*. Vol. 3. No. 1. pp.113~131.
- Manyika, J., Chui, M., Brown, B., Bughin, J., Dobbs, R., Roxburgh, C. and Byers, A. 2011. “Big Data: The Next Frontier for Innovation, Competition, and Productivity”. Mckinsey Global Institute.

- McKibbin, W. and Fernando, R. 2020. "The Global Macroeconomic Impacts of COVID-19: Seven Scenarios". CAMA Working Paper 19/2020.
- Nicola, M., Alsafi, Z., Sohrabi, C., Kerwan, A., Al-Jabir, A., Iosifidis, C., Agha, M. and Agha, R. 2020. "The Socio-economic Implications of the Coronavirus Pandemic(COVID-19):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Vol. 78. pp.185~193.
- OECD. 2020a.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0". <http://www.oecd.org/economic-outlook/march-2020/>(검색일: 2020. 8.3)
- _____. 2020b. "OECD Economic Outlook, June 2020". <http://www.oecd.org/economic-outlook/june-2020/>(검색일: 2020. 8.3)
- Power, D. 2014. "Using 'Big Data' for analytics and decision support," *Journal of Decision Systems*. Vol. 23, No. 2. pp.222~228.
- Rose, A., Benavides, J., Chang, S., Szczesniak, P. and Lim, D. 1997. "The Regional Economic Impact of an Earthquak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Electricity Lifeline Disruptions". *Journal of Regional Science*. Vol. 37. No. 3. pp.437~458.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정보시스템(<http://sg.sbiz.or.kr/>)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http://www.cdc.go.kr/npt/biz/npp/nppMain.do/>)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http://www.ecos.bok.or.kr/>)

Abstract

**Analysis of the Impact of COVID-19 on Local Market Areas
Using Credit Card Big Data:
A Case of Suwon**

Sungho Lee, Seokhwan Choi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COVID-19 on local market areas in Suwon after its outbreak based on monthly sales of credit card affiliate stores. During the period of spreading COVID-19, Suwon's total sales decreased by about 18% compared to the past. While the sales of the face-to-face business, non-essential business, and businesses in traffic-centered market areas declined significantly, the sales of businesses in neighborhood market areas and businesses related to daily-living less declined or even slightly increased due to increasing of in-home activities and social distancing. After April, the overall consumption of Suwon has been recovering to the level of before COVID-19, but the extent of recovery is relatively insufficient in some sectors, which suffered a severe decrease in sales during the period of spreading COVID-19. In particular, this research identified that market areas where had the larger floating population, higher proportion of under-20s consumers, and higher weekend sales had suffered the sharper decline in sale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Keywords: COVID-19, local market area, basic disaster income, big data, Suwon